

순환하는 차이나타운

- 〈엘렌의 功〉(1921)의 번역과 태평양 회로(Transpacific Circuit)의 중국인 타자화 담론

이유정*

1. 서론
2. *The Exploits of Elaine*과 황화 담론의 맥락
 - 2-1. 1910년대 미국의 중국과 중국인 인식
 - 2-2. 1910년대 미국 대중문화와 연속활극의 매체적 조건
 - 2-3. 신여성 엘렌: 인종-젠더 연동 구조의 서사적 축
 - 2-4. 룡 신과 차이나타운: 인종화된 위협의 표상
 - 2-5. 움켜쥔 주먹: 백인 남성 악당과 내부 위협의 구조
3. 〈엘렌의 功〉의 번역 전략과 오리엔탈리즘의 재배치
 - 3-1.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거리
 - 3-2. 1920년대 〈엘렌의 功〉번역의 매체적 조건과 김동성
 - 3-3. 인종화된 언어: 룡 신과 중국인의 번역
 - 3-4. 차이나타운의 공간적 번역: 관광과 범죄의 이중 코드
 - 3-5. 번역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이동과 굴절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 연속 탐정물 *The Exploits of Elaine*과 그 조선어 번역 〈엘렌의 功〉을 중심으로, 미국 대중문화 속 황화론 담론이 번역을 통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고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에 대한 타자화의 담론이 태평양 횡단의 제국의 회로를 따라 동시다발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영어영문학과/근대한국학연구소 부교수

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과 일본 제국의 중국 타자화 담론이 단순한 우연적 유사성이 아니라, 초국가적 제국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순환하고 공명하던 재현 체계의 일부임을 전제하며, 흑스위스의 블랙페이스(blackface) 대양횡단적 순환론을 동아시아 번역의 맥락으로 확장한다.

2장에서는 원작에 나타난 롱 신(Long Sin)과 차이나타운의 인종화된 재현을 1882년 중국인 배척법 이후 미국 사회의 황화 담론 맥락에서 분석하고, 신여성 엘렌의 인종-젠더 연동 구조 및 백인 남성 악당의 내부 위협 구조를 규명한다. 3장에서는 김동성의 번역 전략을 원문 대조를 통해 고찰하며, 번역자의 개입적 서술, 발화 주체의 위치 이동, 수용자의 문화적 조건이라는 세 층위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굴절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미국발 차이나타운 서사가 일본 제국의 중국 타자화 담론 및 식민지 조선의 중국 인식과 중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번역이 서구 담론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제국적 인종 담론의 순환 회로 안에서 수행되는 복잡한 문화적 협상의 장이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하는 데 있다. 이는 문화 제국주의의 단선적 확산 모델을 넘어, 번역을 통한 담론의 이동이 항상 재맥락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흑스위스의 영어권 중심 분석 틀을 동아시아 번역 경로로 확장하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오리엔탈리즘, 차이나타운, 중국인 타자화, 김동성, 〈엘렌의 功〉, 식민지 조선, 번역)

1. 서론

근대 초기 조선에서 신문 연재 번역 소설은 근대적 감각과 지식을 대중적으로 매개하는 핵심 장르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번역·번안 추리소설은 단순한 오락 서사의 차원을 넘어, 서구의 과학적 합리성, 도시 공간에 대한 감각, 범죄와 음모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타자를 식별하고 배치하는 근대적 시선을 함께 운반하는 문화적 매체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텍스트가 전한 것은 과학적 추론과 서사적 흥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구 대중문화가 만들어 낸 인종화된 타자 표상과 이국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종화된 표상의 이동을, 단일한 국민국가적 기원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제국적 회로를 따라 형성되고 순환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켈런 호스워스(Kellen Hoxworth)는 *Transoceanic Blackface: Empire, Race, Performance*(2025)에서 영미권 제국(Anglophone imperial world) 전역에 걸친 인종화된 퍼포먼스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블랙페이스(blackface)와 민스트렐시(minstrelsy)를 미국 고유의 문화적 실천으로 보는 기존의 이해를 수정한다. 호스워스의 학술적 개입의 핵심은 ‘기원-수출 모델(origins-and-export model)’을 비판하고, 블랙페이스가 “하나의 국민적 중심과 전통에서 다양한 식민지 주변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양횡단적이고 다방향적인 순환(transoceanic and multidirectional circulations)”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¹⁾ 즉 호스워스가 보여주는 것은, 인종화된 표상이 특정 국가에서 형성되

1) K. Hoxworth, *Transoceanic Blackface: Race, Empire, Performance*,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2025, p.24, p.98, pp.194-195.

어 다른 곳으로 단선적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공유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여러 접점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되고 순환되었다는 사실이다.

혹스워스의 이러한 통찰은 블랙페이스라는 특정 퍼포먼스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가 제기하는 핵심적 질문, 즉 제국의 인종 담론은 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로 출현하는가, 그리고 그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국적 회로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 즉 중국인과 차이나타운을 둘러싼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형성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중국인을 범죄적이고 음모적이며 위험한 타자로 재현하는 담론은 미국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황화론(Yellow Peril)에 기반한 인종적 편견증은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독일 제국, 러시아, 대영제국에서도 동시에 표면화되었다.²⁾ 동시에, 일본 제국은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고유한 타자화 담론을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 타자화 시선은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가정소설이나 1906년 이인직의 <혈의루> 등 식민지 조선 초기 서사에서도 이미 자생적·보편적 형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발 황화담론의 유입은 완전히 새로운 시선의 이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아시아 내부의 위계적 타자화 담론과 공명하는 과정이었다. 로버트 에스킬센(Robert Eskildsen)이 “모방적 제국주의(mimetic imperialism)”라고 명명한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서구 문명을 전유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타자

2) T. Klein, “The ‘Yellow Peril’” in *European History Online*, ed. J. Paulmann, Mainz: Leibniz Institute of European History, 2015, <http://www.ieg-ego.eu/kleint-2015-en>. (접속일: 2026.6.10.)

에 대한 지배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이중 운동을 수행했다.³⁾

이처럼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과 일본 제국의 중국 타자화 담론은 단순히 우연한 유사성이 아니라, 20세기 초중반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국가적 제국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순환하고 공명하던 재현 체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인은 아편, 비밀결사, 범죄, 비위생적 거주지와 결합된 위험한 이방인으로 서사화되었고, 일본 제국의 담론에서 중국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근대화에 실패한,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후진적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이 두 담론의 구체적 형태는 다르지만, 제국적 주체가 중국/중국인을 자신보다 열등한 인종적·문명적 타자로 범주화하고, 그 범주화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근본적 논리는 동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신문 매체에 중국의 혼란, 마적의 횡행, 아편, 중국인 범죄에 관한 기사가 대거 수록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보도의 양상이 같은 시기 미국 대중매체에서 차이나타운을 범죄와 음모의 공간으로 재현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을 향한 타자화의 담론이 태평양을 둘러싼 제국적 회로를 따라, 그리고 아마도 유럽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3) R. Eskildsen, "Of Civilization and Savages: The Mimetic Imperialism of Japan's 1874 Expedition to Taiw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2, 2002, pp.388-418. 아예렛 조하르(Ayelet Zohar)는 이러한 과정을 "서구와의 연합(association)과 아시아로부터의 이탈(disassociation)의 이중 운동"으로 개념화하면서, 이것이 서구 식민주의를 추동한 이분법적 논리와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와 류큐, 한국과 대만, 만주와 중국,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종적 이데올로기와 제국적 실천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Ayelet Zohar, "Introduction: Race and Empire in Meiji Japan,"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8, No. 20, 2020, p.1.

이 광범위한 현상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번역 텍스트를 통해 이러한 형성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엘렌의 功〉의 경우 역시 미국 대중문화 속 황화론적 차이나타운 표상이 번역과 변안을 통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고, 다시 경성의 화교 거리와 결합되며 새로운 “지나인 마굴” 담론으로 재맥락화되고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태평양 회로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표상은 단지 조선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제국의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태평양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번역·변형되며 축적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⁴⁾

본 논문이 주목하는 김동성 번역 〈엘렌의 功〉은 1921년 2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동아일보』에 총 129회 연재되었는데, 이 작품은 아서 벤저민 리브(Arthur B. Reeve)의 *The Exploits of Elaine*을 저본으로 한 장편 번역 탐정소설로, 크레이그 케네디(Craig Kennedy)라는 과학 탐정과 여성 주인공 엘렌 닷지(Elaine Dodge)의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 대중서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The Exploits of Elaine*은 과학 탐정, 클리프행어, 연속 모험 서사라는 장르적 특성뿐 아니라, 20세기 초 미국 대중문화의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을 응축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는 뉴욕 차이나타운, 중국인 악역 롱 신(Long Sin), 아편굴, 비밀결사조직(Tong), 동양적 음모와 같은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미국 사회가 중국인과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위협하고 은밀하며 음모적인

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범태평양 회로(transpacific circuit)”라는 개념은, 미국·일본·식민지 조선·중국 등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들이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해상 교통, 이민, 무역, 전신 통신, 번역 출판, 신문 연재, 영화 및 대중문화 유통망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문화적·물질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한 국가 간 영향 관계라기보다, 다양한 제국과 식민지, 항구 도시, 이주 공동체가 서로를 매개하며 문화적 상상력과 인종 담론을 순환시키던 이동의 구조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공간/존재로 서사화했는지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즉 이 작품에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범죄와 비밀, 음모와 이국성이 응축된 공간으로 제시되며, 중국인은 그러한 공간과 결부된 위험한 타자로 재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엘렌의 功〉은 미국 탐정소설의 번역이라는 차원을 넘어, 차이나타운과 중국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태평양 회로를 따라 식민지 조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순환되고 재배치되는 하나의 구체적 접점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엘렌의 功〉에 재현된 중국인에 대한 타자화 담론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에서 조선으로 단선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조선이 놓여 있던 제국적 회로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오미일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920년대에 이르면 식민지 시기 조선의 주요 도시, 인천과 경성을 중심으로 화교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화교 공동체는 조선 사회에서 완전히 내면화되지 못한 채 외부적 타자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화교 주거지는 폐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때로는 범죄, 아편, 도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재현되었다.⁵⁾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조선인의 직접적 경험뿐 아니라, 일본 제국이 중국을 후진적이고 무질서한 공간으로 재현하는 담론이 식민지 교육과 매체를 통해 매개되는 경로, 그리고 서구 대중문화의 번역을 통해 황화론적 이미지가 유입되는 경로들이 중첩된 영향이

5) 실제로 경성의 중국인사회는 1880년대부터 형성되었고, 1920년대 화공의 유입 이후 남대문 서쪽의 장곡천정·북미창정·태평통 2정목·서소문정 등으로 주거지가 확대되었다. 특히 1920년대 말 서소문정은 중국인이 조선인이나 일본인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마을로 인식될 정도였으며, 이 공간은 아편굴과 매음굴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식민주의 언론과 조선인 언론에 의해 ‘엽기가’ 혹은 ‘마굴’로 표상되었다. 오미일의 연구는 이러한 이미지가 특정 도시 공간의 로컬리티에 부착된 뒤 다시 중국인 일반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투사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미일,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 『동방학지』 제163호, 2013, 3-33쪽.

있었을 것이다. 특히 1900년대 후반 하와이 이민 갈등과 1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 간 군사적 대립(Orange Plan)으로 인해 미국발 황화론이 일본을 겨냥하게 되자, 일본 제국은 황인종 담론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한편, 그 인종적 위협의 대상을 ‘중국인’에게 전가·대체하는 담론적 굴절을 수행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 일본의 문명화 기획에 편입되기 위해 중국을 선제적으로 타자화하게 만드는 다층적 효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엘렌의 功〉의 중국인 표상은 미국 오리엔탈리즘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태평양 회로를 따라 형성되고 있던 중국인 타자화 담론들이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고 중첩되는 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엘렌의 功〉을 근대 초기 탐정소설 수용의 자료로만 다루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둘러싼 태평양 회로를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중국인 타자화 담론이 번역을 통해 접합되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 일본 제국 담론과 서구 오리엔탈리즘이 중첩된 상상력 속에서 구성된 것이며, 이는 번역문학과 대중서사 속에서 중국을 범죄와 음모의 공간으로 재현하는 서사적 장치와 맞물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The Exploits of Elaine*에 나타난 차이나타운과 중국인 악역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되, 이를 20세기 초 미국 대중문화의 고립된 산물로 다루지 않고,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1882) 이후 미국 사회에서 중국인과 차이나타운을 범죄 공간/존재로 서사화해 온 담론적 계보 안에 위치시킨다. 3장에서는 김동성의 〈엘렌의 功〉이 이러한 재현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 변형, 또는 강화하는지를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를 통해 고찰하는 동시에, 이 번역이 연재되던 같은 시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면에 수록된 중국인

관련 보도, 즉 중국인거리의 범죄, 아편, 무질서를 다루는 기사들의 담론 구조를 함께 분석한다. 이 두 층위의 분석을 병치함으로써 본 논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서사에서 차이나타운을 재현하는 방식과 식민지 조선의 신문 매체가 중국인 공동체를 보도하는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유사성이다.

2. *The Exploits of Elaine*과 황화 담론의 맥락

2-1. 1910년대 미국의 중국과 중국인 인식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의 황화 담론은 단순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법과 정책으로도 현실화되었다. 19세기 후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중국인을 추방하라는 구호가 노동운동에 등장하고 폭동이 벌어지면서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특정 민족 이민 금지법인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중국 노동자의 신규 이민을 금지하고 미국 내 중국인의 귀화를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주 중인 중국인 노동자의 아내와 자녀의 입국마저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어서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계의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아계 공동체는 극도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고, 미국 주류 사회와의 교류나 통합이 구조적으로 가로막힌 상태였다.⁶⁾

6) L. Lowe,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niv. Press, 1996; E. Lee, *At America's Gates: Chinese Immigration during the Exclusion Era, 1882-1943*,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M.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이처럼 이민 제한과 인종차별의 여파로 1910년대 미국 도시들에 형성된 중국인 공동체(차이나타운)는 여성의 수가 턱없이 적은 독신 남성 사회가 지속되었고,⁷⁾ 남성 이민자들을 자체적인 협회와 비밀결사(Tong) 등을 조직하여 내부 결속을 다졌다. 그러나 백인 사회의 시각에서 차이나타운은 폐쇄적인 계토로 비치며 온갖 위험한 범죄가 숨은 곳이라는 악명을 얻게 된다. 실제 신문들은 차이나타운 관련 범죄 기사만 대서 특필하고, 살인 사건조차 모두 통 조직의 전쟁이나 비밀결사와 연결 짓는 방식으로 보도했다.⁸⁾

미국의 차이나타운과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중 담론을 다룬 아시아계 미국인 및 미국문화 연구들은, 미국 사회가 중국인을 단순한 이민 집단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종적인 위협의 존재로 재현하는 과정에 주목해왔다. 존 쿠오 웨이 첸(John Kuo Wei Tchen)의 *New York before Chinatown* (1999)은 뉴욕 대중문화와 선정적 언론이 중국인을 “heathen Chinese,” “yellow peril,” “oriental vice”와 같은 표상으로 조직하며 차이나타운을 어둡고 음란하며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상상한 과정을 분석한다.⁹⁾ 특히 당시 신문과 삽화, 대중 오락물은 차이나타운을 아편굴(opium den), 도박소굴(gambling hell), 지하 미로(underground labyrinth), 성적 타락의 공간(space of sexual degeneracy)으로 묘사하였고, 중국인 남성은 백인 여성과 소녀를 유혹하거나 타락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재현되었다.¹⁰⁾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4.

7) “Chinatown,” NY.com, accessed November 20, 2025, <https://www.ny.com/articles/chinatown.html>.

8) C. Ko-lin. *Chinatown Gangs: Extortion, Enterprise, and Ethnicity*. Oxford Univ. Press, 2000, pp.5-6.

9) J. Tchen, *New York before Chinatown: Orientalism and the Shaping of American Culture, 1776-188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9, pp.3-15.

10) 위의 책, pp.58-92.

나안 샐(Nayan Shah)의 *Contagious Divides*(2001) 역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미국 공중보건 담론 속에서 질병의 구역(zone of disease), 오염의 공간(space of contamination), 성적 위험의 장소(site of sexual danger)로 재현된 과정을 분석하며, 차이나타운이 백인 가정과 여성성을 위협하는 장소로 상상되었음을 지적한다.¹¹⁾ 데이비드 엥(David L. Eng)의 *Racial Castration*(2001)은 또한 중국인 남성을 비정상적이거나 왜곡된 성적 존재로 재현한 미국 대중문화와 법·언론 담론을 분석하면서, 백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공포와 인종 간 혼인(miscegenation)에 대한 불안을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의 핵심 요소로 설명한다.¹²⁾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선정적 신문과 대중매체가 차이나타운을 악마적 공간(demonic space), 악습과 중독의 소굴(den of vice and addiction), 여성과 아동을 위협하는 비밀 지하세계(secret underworld)로 반복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중국인과 중국계 공간을 미국 사회 내부의 위험한 타자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채드 힙(Chad Heap)은 1890년대 초부터 뉴욕이 차이나타운을 찾아가는 ‘슬럼 관광’ 열풍 속에 백인 중산층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국적 관광지가 되었던 것에도 주목한다.¹³⁾ 슬러밍(slumming)

11) 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1, pp.1-12, pp.77-115.

12) D. Eng,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niv. Press, 2001, pp.1-28.

13) 관광업체와 가이드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아편굴, 지하통로, 납치 음모, 음산한 지하실 등 자극적인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갖은 장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중 상당수가 관광객을 놀래키고 돈을 벌기 위해 조작된 연출이었다. P. Gates, *Criminalization/Assimilation: Chinese/Americans and Chinatowns in Classical Hollywood Film*,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2019, p.52; C. Heap, “Adventures in the Slums and Red-Light Districts” in *Slumming Sexual and Racial Encounters in American Nightlife, 1885-1940*, Univ. of Chicago Press, 2009, pp.101-153.

은 중상류층 백인들이 도시의 빈민가, 특히 매춘굴이나 술집이 밀집한 지역을 탐험하는 사회적 활동을 일컬었는데, 이 행위는 사회 개혁가들의 조사 업무 혹은 사회적 호기심, 성적 일탈 욕망, 타자화된 인종 공간에 대한 판타지가 복합적으로 얹힌 것이었다. 호기심에 찬 관광객들은 투어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가이드의 인솔 하에 차이나타운 뒷골목을 구경했으며, 이들에게 중국인 밀집 지역은 마치 기괴하고 위험한 이국으로 연출되었다. 바로 이러한 도시 오리엔탈리즘과 황화론적 상상력이 대중문화 속에서 서사화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The Exploits of Elaine*이라 할 수 있다.

2-2. 1910년대 미국 대중문화와 연속활극의 매체적 조건

1910년대 미국 대중문화는 탐정소설, 잡지 연재물, 무성영화 연속극이 서로의 서사 장치와 인물을 공유하며 급속히 융합되던 시기였다. *The Exploits of Elaine*은 이 매체적 혼종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연작 영화(serial film)의 서사 구조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험 서사를 생산했다. 특히 이 시기 연속활극은 신문 연재소설과 무성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매체 구조를 특징으로 하였다. 파테(Pathé) 제작, 허스트(Hearst) 계열 신문사 연재라는 영화-신문 연동 체제를 통해 대 성공을 거둔 *The Perils of Pauline*(1914)의 전례를 이어, *The Exploits of Elaine*(1915) 역시 매회 영화 개봉에 맞추어 신문에 해당 에피소드의 요약 서사와 스틸 사진을 게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이자 관객인 수용자는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를 동시에 소비하는 이중적 수용 구조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 1〉 Omaha Daily Bee Sun, Mar 21,
1915, p.22.

〈그림 2〉 The Pittsburg Post, Jan 31,
1915, p.18.

이 이중 매체 구조는 서사의 반복적 위기와 감각적 자극을 배가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이, 무성영화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된 위기 장면은 신문 연재를 통해 문자와 사진으로 재생산되었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서사적 기대를 형성하게 하거나 영화 관람 후에도 서사를 반추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파테가 주도한 ‘시리얼 퀸(serial queen)’ 장르는 매회 여성 주인공을 극단적 위기의 장면 속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탐정소설적 해결 구조보다 신체적 스펙터클과 서스펜스를 전면화하였다. *The Exploits of Elaine*은 바로 무성영화 시대의 시리얼 퀸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19세기적 탐정소설의 합리성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적 연속활극의 속도와 스펙터클, 정동의 문법을 결합한다. 과학 탐정은 진실을 밝혀내는 주체이고, 여성 주인공은 위기와 감정의 중심이며, 회차적 구조는 불안을 지속시키는 장치가 된다. 이 세 요소의 결합은 *The Exploits of Elaine*을 단순한 장르 텍스트가 아니라, 1910년대 미국 대중문화가 과학, 여성성, 시각적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사적 자료로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르적·매체적 특성이 인종과 젠더의 문제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엘렌의 신체가 위기와 스펙터클의

중심으로 배치되는 방식, 케네디의 과학성과 통제성이 서사의 질서를 보장하는 방식,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중국인 악역이 위협의 배경으로 기능하는 방식은 모두 같은 대중문화적 구조 안에서 결합된다.

2-3. 신여성 엘렌: 인종-젠더 연동 구조의 서사적 축

당대 미국 탐정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대개 두 가지 상반된 전형, 즉 위기에 처한 여성(damsel in distress)과 근대적 신여성(New Woman)의 변형으로서의 여성 탐정 사이를 오가며 재현되었다. 엘렌은 이러한 장르적 과도기에 놓인 인물이다.¹⁴⁾ 그녀는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탐문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적 여성의 면모를 보이지만, 사건의 이론적 해석과 기술적 해결은 일관되게 케네디의 몫이다.

챕터	The Exploits of Elaine	〈엘렌의 功〉	에피소드 요약
1	The Clutching Hand	움켜쥔 주먹	억만장자 테일러 다지가 '클러칭 핸드'의 증거를 손에 넣자 살해된다. 명탐정 크레이그 케네디가 사건을 맡는다.
2	The Twilight Sleep	몽혼 약	케네디는 엘렌 명의의 '수사 중단' 편지를 받지만, 엘렌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음모의 서막이 열린다.
3	The Vanishing Jewels	패물전	케네디가 보석 절도를 저지하고, 범인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다. '움켜쥔 주먹' 일당의 교묘한 수법이 드러난다.

14) P. Gates, *Criminalization/Assimilation*, p.52.

4	The Frozen Safe	언 금고	‘움켜쥔 주먹’은 액화 가스를 금고에 주입해 폭발적으로 문을 날리려 한다. 케네디가 이를 간파해 대응한다.
5	The Poisoned Room	독약 뿌린 방	엘렌의 방 벽지에 비소를 스며들게 해 암살을 시도한다. 케네디가 중독을 밝혀 목숨을 구한다.
6	The Vampire	피빠는 귀신	엘렌이 침입자를 쏘자, ‘움켜쥔 주먹’은 부하를 살리려 엘렌을 납치해 강제 수혈을 시도한다. 케네디가 구조에 나선다.
7	The Double Trap	쌍으로 노흔돏	‘움켜쥔 주먹’이 엘렌과 케네디를 유인하는 두 겹의 계락을 꾸민다. 연속적인 함정 속에서 간신히 탈출한다.
8	The Hidden Voice	숨은 목소래	‘움켜쥔 주먹’이 우연히 엘렌의 전화를 가로채 아버지의 서류 존재를 듣고, 서류 회수를 노린다. 케네디는 문서 보호에 움직인다.
9	The Death Ray	흑독한 광선	‘움켜쥔 주먹’은 민간인을 죽음의 광선으로 위협해 케네디를 흔들려 하지만 실패한다. 표적을 케네디의 연인 엘렌으로 돌린다.
10	The Life Current	생명의 물구비	‘움켜쥔 주먹’은 케네디와 엘렌의 관계를 이간하려다 실패하자, 엘렌을 납치해 하수도에 가둬 유독가스로 질식사키려 한다.
11	The Hour of Three	세시가 되면	엘렌의 생일 선물인 손목시계에 독침 장치를 숨겨 암살을 시도한다. 케네디가 장치를 밝혀 낸다.
12	The Blood Crystals	피스방울	중국계 갱, 룡 신이 새 악당으로 등장, 엘렌을 아편굴로 유인해 감금하려 한다. 케네디와의 새로운 대결이 시작된다.
13	The Devil Worshippers	귀신 숭배자	룡 신이 ‘움켜쥔 주먹’과 손잡고 엘렌에게 함정을 파고, 중국 비밀 숭배 집단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

14	The Reckoning	본색이 탄로	목숨을 구걸한 룡 신이 움켜쥔 주먹을 배신해 결정적 증거를 케네디에 넘긴다. 케네디는 마 침내 '움켜쥔 주먹'의 정체를 밝혀낸다.
----	------------------	-----------	--

〈표 1〉 전체 회차 구성과 조선훈어 번역 제목

작품의 화자인 신문기자 제임슨은 엘렌을 처음 만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Elaine Dodge was both the ingenue and the athlete — the thoroughly modern type of girl — equally at home with tennis and tango, table talk and tea.”¹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both the ingenue and the athlete”라는 대비적 병치이다. “ingenue”는 순진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을 뜻하며, “athlete”는 신체적 능력과 활동성을 함축한다. 이 두 속성의 결합은 엘렌이 전통적 멜로드라마의 수동적 여성도, 완전히 자율적인 여성 탐정도 아닌, 시리얼 킨 장르 특유의 이중적 위치, 즉 능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취약한 여성 주인공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qually at home with tennis and tango, table talk and tea”라는 두운(alliteration)을 활용한 나열은 엘렌의 세련미와 다재다능함을 강조하며, 당대 독자에게 기존의 여성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근대적 신여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그러나 이 첫 소개가 만들어내는 기대는 이후 서사 전개와 지속적으로 어긋난다. 각 장은 전형적으로 엘렌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는 클리프행어로 마무리된다. 전체 14장에 걸쳐 그녀는 몽

15) Arthur B. Reeve, *The Exploits of Elaine*, produced by Charles Franks and the Online Distributed Proofreading Team (Project Gutenberg, 2004), chapter 1, <https://www.gutenberg.org/ebooks/5151>. (접속일: 2026. 6. 10) 이에 대응하는 번역본 〈엘렌의 功〉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엘렌따르는 총명하고 날파람잇는 신식의 녀자로 운동계나 무도회나 보통 사교에 매우 능란하였다.” 〈엘렌의 功(공)〉, 『동아일보』, 1921.02.21., 4면.

혼약, 독약을 스며들게 한 방, 강제 수혈, 죽음의 광선, 아편굴 납치, 중국 비밀결사의 제물 의식 등 매 회차 새로운 과학적 혹은 범죄적 장치에 의해 위기에 빠진다. 예컨대, 중국인 갱단 룡 신은 엘렌을 아편굴로 유인해 감금하려 하고, 이후에는 클러칭 핸드(움켜쥔 주먹)와 연합하여 그녀를 제물로 삼으려는 중국 비밀결사 조직의 함정에 빠뜨린다. 10장의 종결부에서 엘렌은 실제로 사망하며, 케네디가 다음 장에서 그녀를 소생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엘렌의 서사적 기능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녀는 “신식의 여자”로 소개되었으나, 서사의 실질적 추동력은 그녀가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녀의 반복적 위기는 케네디의 과학적 역량이 개입해야 할 사건을 매 회차 새롭게 생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케네디는 가젯으로 가득 찬 실험실을 이용해 엘렌의 아버지 살인 범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학 탐정으로 제시되며, 그의 합리적 개입이 있어야만 매 위기가 해소된다. 즉 엘렌의 ‘공(exploits)’은 그녀 스스로의 능동적 성취가 아니라, 반복적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신체의 퍼포먼스에 가깝다. 다시 말해, 엘렌은 행위자로 제시되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위기 상황의 중심에 놓이는 신체로 소비되며, 이는 시리얼 연속극이 여성의 몸을 서스펜스의 핵심 장치로 사용하는 장르적 관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엘렌의 신여성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종화된 위협 구조와 맺는 관계이다. 엘렌의 신체가 반복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서사에서, 위협의 원천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악당에서 시작해 이후 룡 신과 그의 조직, 즉 차이나타운으로 표상되는 동양적 위협으로 이동한다. 이 구조에서 엘렌은 보호받아야 할 백인 여성성의 기표로 기능하고, 룡 신은 그 백인 여성성을 위협하는 인종화된 남성성의 기표로 기능한다. 케네디의 과학적 탐정 능력은 이 두 기표 사이에서 문명화된 백인 남성성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서사적 장치가 되며, 즉 인종, 젠더, 계급의 세 축이

하나의 서스펜스 구조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이처럼 엘렌은 서사의 표면상 주인공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종화된 위협이 향하는 표적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의 구조를 완성하는 기능을 맡는다. 바로 이 점에서 엘렌에 대한 젠더 표상은 룡 신과 차이나타운의 인종 재현과 분리되지 않는다.

2-4. 룡 신과 차이나타운: 인종화된 위협의 표상

미국 대중문화에서 중국인 악당을 범죄, 아편, 비밀결사, 성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서사로 재현하는 것은 실제 차이나타운의 현실이 아니라 미국 주류 문화가 반복적으로 재생산한 코드의 집합이었다. *The Exploits of Elaine*의 중국인 악당 룡 신은 바로 이 코드의 유형론적 산물이다. 그는 개별적 심리나 서사적 배경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지 않으며,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과 결부되어 동양적 위협의 집합적 기표로 기능한다. 다음 인용문은 12장(그림 3)과 13장(그림 4)에서 룡 신과 차이나타운이 전체 서사에서 전면으로 드러나며 중국인과 차이나타운에 대한 외양 및 공간 묘사가 자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림 3〉 *The Star-Independent*,
May 6, 1915, p.4.



〈그림 4〉 *The Star-Independent*,
May 13, 1915, p.8.

(가)Long was of the mandarin type, with drooping mustache, well dressed in American clothes, and conforming to the new customs of an occidentalized China(chap. 12).

(나)Long Sin had continued his placid way, revolving some dark and devious plan beneath his impassive Oriental countenance. He was no ordinary personage. In fact he was astute enough to have no record. He left that to his tools(chap. 12).

(다)This remarkable criminal had established himself in a hired apartment downtown. It was furnished in rather elegant American style, but he had added to it some most valuable Oriental curios which gave it a fascinating appearance(chap. 12).

(라)Long Sin, now in rich Oriental costume, was reclining on a divan smoking a strange looking pipe and playing with two pet white rats. Each white rat had a gold band around his leg, to which was connected a gold chain about a foot in length, and the chains ended in rings which were slipped over Long's little fingers. Ordinarily, he carried the pets up the capacious sleeve of each arm(chap. 12).

(마) "Answer it," he directed the servant who hastened to do so, while Long glided like a serpent into a back room(chap. 12).

(바) "Oh," cried Mary wringing her hands, stricken in mock panic, "oh, I'm so frightened. This may be the den of Chinese white slavers!"(chap. 12).

(사) He's a tong man who has been chosen to do away with the Prince. He followed me, and says you have done his work for him. If you will give him ten thousand dollars for expenses, he will attend to hiding the body(chap. 12).

(아) In the center of a devious and winding way, quite unknown to all except those who knew the innermost secrets of the Chinese quarter and even unknown to the police, there was a dingy tenement house, apparently inhabited by hardworking Chinamen, but in reality the headquarters of the notorious devil worshippers, a sect of Satanists, banned even in the Celestial Empire. The followers of the cult comprised some of the most dangerous Chinese criminals, thugs, and assassins, besides a number of dangerous characters who belonged to various Chinese secret societies. At the head of this formidable organization was Long Sin, the high priest of the Devil God, and Long Sin had, as we knew, already joined forces with the notorious Clutching Hand(chap. 13).

(자) On the dais itself stood, or rather sat, an ugly looking figure covered with some sort of metallic plating. It almost seemed to be the mummy of a Chinaman covered with gold leaf. It was thin and shrunken, entirely nude. Into this room came Long Sin attired in an elaborate silken robe. He advanced and kowtowed before the dais with its strange figure, and laid down an offering before it, consisting of punk sticks, little dishes of Chinese cakes, rice, a jar of oil, and some cooked chicken and pork. Then he bowed and kowtowed again(chap. 13).¹⁶⁾

인용문 (가)에서 룡 신은 “mandarin type”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well dressed in American clothes”하며 “occidentalized China”에 순응하는 인물로 소개된다. 여기서 “mandarin type”라는 표현은 중국의 관료적 권위와 전통적 위계를 환기하면서 룡 신을 단순한 하층 이민자가 아닌 지배 계층의 인물로 위치시키되, 그 권위를 서구적 맥락에서 위협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동시에 “conforming to the new customs”라는 서술은 룡 신의 서구화가 진정한 동화가 아니라 표면적 순응, 즉 위장임을 암시한다. (나)에서 이 암시는 더욱 명확해진다. “placid way”와 “impassive Oriental countenance”라는 표현은 룡 신의 외면적 평온함 아래 “dark and devious plan”이 숨어 있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며, 동양인의 감정적 불가독성(inscrutability)을 음모와 직접 연결시킨다. 특히 “he was astute enough to have no record. He left that to his tools”라는 서술은 룡 신을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배후 조종자로 설정하며, 이는 앞서 2-1절에서 살펴본 미국 언론의 차이나타운 재현, 즉 중국인 범죄 조직을 불가해한 비밀 네트워크로 형상화하는 담론과 조응한다.

또한 위의 인용문 (다)와 (라)에서 보여주듯이, 룡 신의 거처는 단순한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가 차이나타운에 부여했던 오리엔탈리즘적 환상과 인종적 공포가 응축된 공간으로 재현된다. 작품은 룡 신의 아파트를 “rather elegant American style”로 꾸며진 현대적 도시 공간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valuable Oriental curios”를 배치하여 “fascinating appearance”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룡 신이 완전히 외부적이고 낙후된 ‘동양인’으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뉴욕 다운타운의 현대적 아파트에 거주하며 미국식 세련미를

16) Reeve, *The Exploits of Elaine*, chap.12-13, <https://www.gutenberg.org/ebooks/5151>

소비하는 도시적 인물이지만, 그 내부에는 “Oriental curios,” “strange looking pipe,” “pet white rats”와 같은 기괴하고 음험한 오리엔탈리즘적 기호들이 배치된다. 즉 룡 신은 단순한 전통적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 도시 근대성 내부에 침투한 “modern Oriental villain”으로 구성된다. 특히 흰 쥐를 금사슬에 연결해 손가락에 매달고 다니는 장면은 애완동물과 독성 생물, 장난감과 위협의 경계를 교란하며 룡 신의 비정상성과 퇴폐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이어 “Long glided like a serpent into a back room”이라는 묘사는 룡 신을 인간이라기보다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뱀의 형상과 연결하며, 서구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악마성·유혹·타락을 상징해온 뱀의 이미지를 중국인 악당의 몸매에 투사한다. 엘렌을 속여 룡 신의 거처로 데리고 간 또 다른 백인 여성 메리가 (바) “This may be the den of Chinese white slavers!”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외국인 거주지가 아니라, 백인 여성을 납치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white slavery”의 공간으로 재현되며, 이는 19세기 말 미국 선정적 언론이 반복적으로 생산했던 반중 담론의 핵심 서사를 그대로 계승한다.

인용문 (사)에서는 룡 신의 통 조직이 구체적인 범죄 서비스의 제공자로 재현된다. “He’s a tong man who has been chosen to do away with the Prince”라는 서술은 통 조직원을 특정 대상의 제거를 위해 “선택된(chosen)” 전문 암살자로 제시하며, “ten thousand dollars for expenses”라는 구체적 금액의 제시는 살인과 시체 은닉(“hiding the body”)을 상업적 거래로 코드화한다. 이는 2-1절에서 확인한 미국 언론의 보도 관행, 즉 차이나타운의 모든 범죄를 통 조직의 전쟁이나 비밀결사와 연결짓는 방식을 서사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통 조직은 여기서 개별 범죄자의 집합이 아니라, 살인을 위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로 형상화되며, 이는 차이나타운 전체를 하나의 거

대한 범죄 인프라로 상상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인용문 (아)와 (자)에서 보여주는 13장의 비밀 종교 의식 장면에서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공포가 더욱 과장된 형태로 조직된다(그림 4). 작품은 중국인 거주 구역 내부를 “devious and winding way,” “unknown even to the police”라고 묘사하면서, 차이나타운을 근대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미지의 지하세계로 형상화한다. 겉으로는 “hardworking Chinamen”이 거주하는 평범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headquarters of the notorious devil worshippers”라는 설명은 중국인 공동체 전체를 이중성과 음모의 공간으로 재현한다. 특히 “devil worshippers,” “sect of Satanists,” “secret societies,” “assassins”와 같은 단어들은 중국 문화를 종교적·정치적 위협과 결합시키며, 중국인 집단을 합리적 시민 사회 밖에 존재하는 비밀 결사 네트워크처럼 묘사한다. 이 장면은 실제 중국 종교나 민속에 대한 재현이라기보다, 서구 오컬트 상상력과 황화론 담론이 혼합된 판타지에 가깝다. “mummy of a Chinaman covered with gold leaf,” “god of the netherworld,” “weird incantations” 등의 표현은 중국 문화를 죽음, 주술, 악마 숭배와 연결시키며, 차이나타운을 근대 도시 내부의 고딕풍 암흑 지하세계로 구축한다. 특히 경찰조차 접근할 수 없는 “secret Chinese quarter”라는 설정은 차이나타운을 미국 법질서 바깥의 치외법권적 공간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엘렌이 희생 제물로 끌려가는 13장 마지막 장면은 인종화된 성적 공포와 백인 여성 보호 서사가 결합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룡 신은 엘렌에게 “kowtow”(叩頭(고두))를 강요하며 그녀를 중국적 의식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그녀의 육체를 “encased in precious gold”로 보존해 악신의 배우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백인 여성의 몸은 단순한 납치 대상이 아니라, 동양적 의식과 주술 속에서 변형, 오염, 소유되어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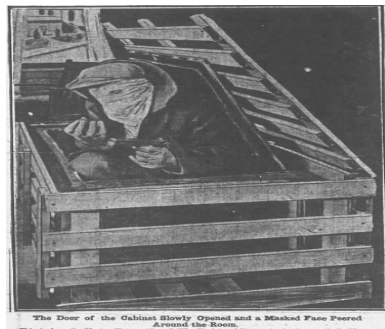
대상으로 재현된다. 특히 “magic and rare drugs,” “sticky black material,” “weird incantations,” “smoke” 등의 요소는 아편과 약물, 최면, 주술이 혼합된 동양적 위협의 이미지를 구성하며, 결국 엘렌은 연기에 의해 무의식 상태로 빠져든다. 이러한 장면은 중국인 남성이 백인 여성의 의지와 육체를 약물과 주술로 지배한다는 황화론적 상상력을 극단적으로 시각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The Exploits of Elaine*에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배경 공간이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의 지리가 서사화된 공간이며 근대 도시의 가시적 질서 바깥에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케네디의 과학적 탐정 능력이 진입하여 질서를 복원함으로써 비로소 무력화된다. 즉 차이나타운은 오리엔탈리즘적 공간으로서 합리성과 근대성의 외부를 상상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의 극복을 통해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적 서사 구조는 인물 간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13장에서 룡 신은 클러칭 핸드와 연합하여 엘렌을 함정에 빠뜨리고, 14장에서는 역으로 클러칭 핸드를 배신함으로써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서사적 흐름은 룡 신이라는 외부적 위협이 궁극적으로는 내부 악당 클러칭 핸드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2-5. 움켜쥔 주먹: 백인 남성 악당과 내부 위협의 구조

*The Exploits of Elaine*의 주된 서사적 긴장은 외부의 인종화된 타자가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로부터 출발한다. 클러칭 핸드는 엘렌의 아버지 테일러 다지(Taylor Dodge)의 법률 대리인이자 가문의 측근으로, 엘렌에게 신뢰받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아버지 다지를 살해하고 그 비밀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수장이다. 이 이중성은

단순한 서사적 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클러칭 핸드스가 백인 중산층 전문직 남성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인물은 미국 사회의 합법적 제도, 즉 법률과 재산 관리 체계 내부에 위치하면서 그 권력을 범죄적으로 전용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그의 위협은 차이나타운이나 이국적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질서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림 5〉 *Omaha Daily Bee Sun*,
Jan 24, 1915, p.18.



〈그림 6〉 *Nebraska Daily News-Press Sun*,
Mar 28, 1915, p.27.

이 구조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 초반부(1장-11장)에 걸쳐 클러칭 핸드라는 백인 내부 악당을 전면 배치하고, 후반부(12장 이후)에 비로소 룡 신이라는 외부의 인종화된 악당을 추가로 등장시키는 이 서사적 순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위협의 점층적 외부화 구조이다. 서사는 내부의 백인 남성 위협을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그 위협을 외부의 인종화된 타자에게 전이시킨다. 클러칭 핸드스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동안, 룡 신이 등장함으로써 위협의 중심이 백인 내부자에서 동양인 외부자로 이동한다. 둘째, 두 종류의 위협이 공존하는 구조이다. 백인 내부

자의 위협(제도 내부의 배신)과 동양인 외부자의 위협(문명 외부의 침입)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며, 케네디의 과학적 탐정 능력은 이 두 종류의 위협을 모두 제압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이 두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The Exploits of Elaine*의 서사가 복수의 위협 구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이 롱 신과 차이나타운에만 국한될 경우, 클러칭 핸드라는 백인 내부 악당이 만들어내는 서사적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롱 신의 위협이 오리엔탈리즘적 공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클러칭 핸드로 대표되는 내부적 위협이 서사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조는 젠더 문제와도 결부된다. 클러칭 핸드는 엘렌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위협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그는 엘렌의 아버지의 유산과 가문을 관리하는 권위적 남성으로서 엘렌을 통제하려 하지만, 엘렌은 케네디와 함께 그 통제에 맞선다. 이러한 점에서 클러칭 핸드와의 대결은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가부장적 보호/통제 구조 내부에서 여성 주체가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엘렌을 둘러싼 두 남성 권위 구조의 교체에 가깝다. 클러칭 핸드가 법률과 후견이라는 제도적 권위를 통해 엘렌을 통제하려 했다면, 케네디는 과학과 합리성이라는 인식론적 권위를 통해 엘렌의 서사를 관리한다.

여기에 후반부(12-13장)에서 엘렌은 클러칭 핸드의 위협에 더하여 롱 신이라는 인종화된 악당에게도 납치되고 감금되는 위기를 겪는다. 엘렌의 신체는 이제 단순히 백인 내부 악당의 표적이 아니라, 인종화된 외부 타자의 위협에도 동시에 노출되는 이중 표적으로 재배치된다. 다시 말해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들 사이의 권력 갈등을 조직하는 동시에, 백인 문명과 인종화된 타자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호로도 작동한다. 지나 마르케티(Gina Marchetti)가 분석한 바와 같이, 황화 담론에서 백인 여성의 신

체는 단순한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인종적 경계의 기표로 기능한다.¹⁷⁾ 아시아 남성이 백인 여성을 위협하거나 납치하는 서사 구조는, 인종 간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로 코드화되며 백인 남성 영웅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 틀에서 보면, 롱 신에게 납치된 엘렌을 케네디가 구조하는 장면은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백인 남성 과학자가 인종적 경계를 복원하는 행위로 읽힌다. 이처럼 클러칭 핸드와 케네디가 만들어내는 백인 사회의 서사적 맥락을 전제할 때, 롱 신과 차이나타운의 등장인물은 단순한 외부적 장식이 아니라 서사 전체의 위협 구조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즉, *The Exploits of Elaine*은 과학 탐정, 신 여성, 인종화된 악당, 백인 내부 악당이라는 네 가지 인물 유형을 통해 젠더, 인종, 계급의 위계를 하나의 서스펜스 구조 안에서 동시에 조직하는 텍스트이다. 3장에서는 이 구조가 김동성의 조선어 번역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독서장으로 이동할 때, 어떤 요소가 보존되고 어떤 요소가 굴절되는지를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엘렌의 功〉의 번역 전략과 오리엔탈리즘의 재배치

3-1.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거리

본 절에서는 〈엘렌의 功〉 번역 분석에 앞서, 이 텍스트가 번역된 식민지 조선의 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17) G. Marchetti, *Romance and the 'Yellow Peril': Race, Sex, and Discursive Strategies in Hollywood Fic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pp.1-9.

의 신문 매체가 중국인 거주지와 중국인 남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대중문화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이 번역을 통해 유입되기 이전에(혹은 그와 동시에) 이미 유사한 담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이 번역되어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거리와 중국인 거주지는 “처녀의 피를 빠는 마굴,” “나체 귀신이 모이는 마굴”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 시각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 유사성은,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인에 대한 타자화 담론이 범태평양 제국의 회로를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식민지 조선 신문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마굴(魔窟)”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한 선정적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인종적 타자를 구성하는 핵심 담론 장치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아일보』·『조선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마굴”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총 634회 등장하며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시기에는 사용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실상 식민지 시기에 특유한 담론적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용어의 의미 변화 과정은 중국인 타자화 담론의 형성 궤적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초기인 1920-22년경 “마굴”은 주로 화류 문화, 청년 타락, 매독 유행과 연관되어 도시 퇴폐 문화나 성병, 유흥 공간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간혹 등장하였으나, 1923년 이후부터는 이 표현이 점차 중국인 및 중국인 거주 지역과 결합되기 시작한다. “소녀의 혈을 흡하는 전율할 마굴”, “나신귀의 모여드는 마굴탐방기”와 같은 기사가 등장하며, 1924년에 이르면 “인육시장 탐방기: 완전한 생지옥 선저가티 음침한 마굴속”, “정동일대 마굴 탐방”, “여자를 유인매매하는 중국인의 마굴”과 같은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¹⁸⁾ 이후 이러한 경향은 194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강제 폐간 시기까지 높은 빈도로 유지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탐방”이라는 수사적 장치이다. 이 표현은 단순한 취재나 방문을 넘어, 위험하고 음험한 타자 공간을 몰래 들여다보고 체험하는 행위를 함축한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 도시 문화에서 빈민가, 차이나타운, 유흥가 등을 구경 대상으로 소비하던 ‘슬러밍’ 문화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시 말해 “마굴 탐방” 서사는 단순한 범죄 기사라기보다, 독자에게 위험한 타자 공간을 엿보게 하는 서구의 도시 오리엔탈리즘(urban orientalism)의 서사 장치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기사의 내용은 이 담론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예컨대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조선문화의 중심지라하는 경성 시내에서 정탐소설 이상의 괴괴하고도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 임의 본보에도 루차 보도한 바이어니와 지난 사일 저녁 네 시에 길가로 나아가노든 시내 종로통 룽정목 팔십오번디 장석철씨의 딸 정자(5)가 돌연히 간곳이없서서 그 부모는(...)아편장이가 시내각처로 다니며 어린게집아해를 유인하야다가 시내 서소문정 모 중국인에게 파라 넘긴다는 믿고를 드른 경기도 경찰부 이하 각 경찰서에서 엄밀한 수사를 개시한 결과 마침내 지난십일일밤에야 간신히 시내 서소문정 선모라하는 중국인의 집을 수색하야 수명의 가련히 팔녀간 조선 소녀를 발견하얏스며(...) 흉악한 중국인 선모는 정자의 어엽분 압머리를 무참히 돌려까가 중국소녀와가치만들고 의복도 중국옷을 입히인후 어머니를 불느며(...) ¹⁹⁾

18) 〈소녀의 혈을 흡하는 전율할 마굴〉 『동아일보』, 1923.02.14., 3면; 〈인육시장탐방기: 완연한 생지옥 선저가티 음침한 마굴 속〉, 『조선일보』, 1924.09.26., 3면; 〈정동일대 마굴탐방: 간판은 화생상점, 안에는 투전판〉, 『조선일보』 1924.12.08., 2면; 〈여자를 유인매매하는 중국인 마굴〉, 『조선일보』, 1924.09.23., 3면.

19) 〈소녀의 혈을 흡하는 전율할 마굴〉 『동아일보』, 1923.02.14., 3면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탐소설 이상의 괴괴하고도 무서운 사건”이라는 표현이다. 기사는 실제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의식적으로 탐정 소설의 서사 문법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에게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탐정소설적 음모와 괴괴함의 차원에서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불쌍한 어린 아해를 갖다 참혹히 학대한 악독한 일 탐정소설과 가튼 괴괴사”라는 표현 역시,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탐정소설의 서사적 관습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죄악에 싸인 서부 마굴”로 “시내 서소문정 일대의 중국인촌은 흡혈귀와 밀매음등의 소굴로 유명한터”라고 표현하며,²⁰⁾ 1938년의 기사에서는 “경성 한복판에서 색다른 외인거리를 이루어 지나가로 이름지워있는 서소문정 일대의 지나인 마굴”, “소녀가 탈출한 마굴이라는 지나인의 동리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대장안 한복판에 마굴이란 이름이 판이 찍힌지도 오래이 서소문 지나가 일대가 옛부터 범죄의 온상지대로 가지 가지의 범죄를 자아내는 암흑가”²¹⁾ 로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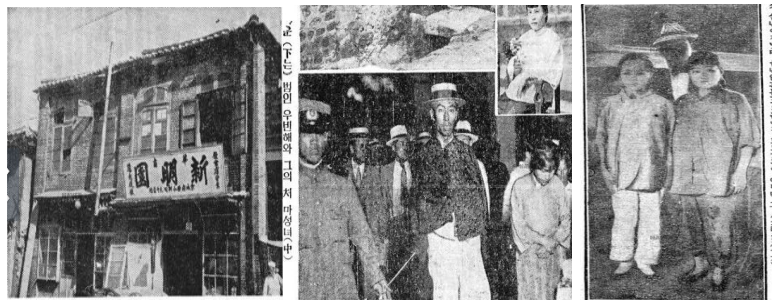
이들 기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식민지 조선이 중국인 거리와 화교 거주지를 단순한 외국인 공간이 아니라, 여성 및 유아 유괴, 성적 타락, 범죄, 질병 등이 뒤섞인 악마적 공간(demonic space), 퇴폐와 오염의 소굴(den of vice and contamination)로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미국의 19세기 말 선정적 언론이 차이나타운을 아편굴, 지하 미로, 성적 위험의 공간으로서 묘사하며 중국인을 백인 사회 내부의 위험한 타자로 구성했던 방식과 구조적으로 상통한다.

물론 『동아일보』·『조선일보』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인 거리에 대한 기사가 양산되는 시점보다 2년 앞선 1921년 연재되었던 탐정소설 〈엘렌의

20) 〈중국인가 지하실에 소녀를 삼년간 감금〉 『조선일보』, 1931.06.06., 3면.

21) 〈서소문정 지나인가 탐방기①〉, 『조선일보』, 1938.06.24., 3면.

功)이 1920년대 신문의 중국인 “마굴” 담론을 직접적으로 촉발했다는 인과적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본 논문은 1920년대 전후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 연재된 탐정소설 전반을 조사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당시 『동아일보』·『조선일보』에 연재된 다른 번안 탐정소설들, 혹은 일본어 매체를 경유하여 유입된 서구 탐정소설의 차이나타운 묘사와 그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렌의 功〉의 번역 연재가 “마굴” 담론 형성에 선행하거나 거의 동시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양자가 공유하는 서사적 문법, 즉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 여성과 아동의 납치, 음모와 범죄의 소굴로서의 중국인 거리라는 재현의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중국인 거리의 마굴과 “기괴한” 탐정소설의 서사를 비유하는 기사는 미국 대중문화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이 번역이라는 경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 유입되면서, 경성의 중국인 거리를 인식하고 서사화하는 문법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그림 7〉〈사진은 소녀가 탈출한 마굴〉『조선일보』, 1938.06.29., 3면.

〈그림 8〉〈소녀참살 암장사건 진상 다육정서 친부 발견〉, 『동아일보』, 1933.06.29., 3면.

〈그림 9〉〈인육시장탐방기 3〉『조선일보』, 1924.09.28., 3면.

한편, 이들 기사에 수반된 사진과 삽화는 또 다른 차원을 드러낸다. 식민지 조선 중국인 거리에 관한 신문 기사에서 중국인 남성은 전통 복장의 이국적 타자가 아니라, 양복을 입은 세련된 “모던보이”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시각적 재현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언론과 대중문화에서 초기 황화론 이미지, 즉 변발(queue), 헐렁한 장삼(loose robe), “이교도적(heathen)” 외양으로 중국인을 표상하던 묘사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초 미국 대중문화와 선정적 언론 속에서도 중국인 남성의 이미지는 전통 복장의 중국인에서 맞춤 양복을 입은 도시적 신사, 코즈모폴리탄 독신남(cosmopolitan bachelor), 모던 댄디(modern dandy)의 모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The Exploits of Elaine*에서 룡 신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에서 이와 같은 도시 신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로버트 리(Robert Lee)는 *Oriental: Asian Americans in Popular Culture*(1999)에서 아시아인이 미국 대중문화 속에서 단순한 “외국 이교도(foreign heathen)”에서 점차 “근대적이지만 위험한 동양인(modern but dangerous Oriental)”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도시적 세련미와 소비문화에 접근하는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가 새로운 형태의 황화론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²²⁾ 데이비드 엥의 *Racial Castration* 역시, 아시아 남성이 근대적 남성성(modern masculinity)을 획득하는 순간 오히려 백인 남성성에 대한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인식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양복, 도시적 매너, 세련된 소비문화, 백인 여성과의 사교 등이 기존의 “거세된 동양인(emasculated Oriental)”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복합적인 불안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한다.²³⁾ 첸의 *New York before Chinatown* 또한 차

22) Lee, *Oriental*, pp.1-14.

23) Eng, *Racial Castration*, pp.1-28.

이나타운이 고립된 전통 중국의 재현 공간이 아니라, 뉴욕의 소비문화, 밤 문화, 유흥문화와 결합된 하이브리드적 근대 도시 공간이었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중국인 남성 역시 종종 근대적 도시인(modern urban figure)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음을 보여준다.²⁴⁾

이 맥락에서, 식민지 조선의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양복 차림의 중국인 남성, 즉 “모던 보이”로서의 중국인 이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중국인이 경성의 근대 도시문화 외부에 존재하는 이국적 타자가 아니라, 그 내부를 배회하며 소비, 유흥, 범죄 네트워크에 연결된 존재로 상상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재현은 단순한 “전통적 중국”의 표상이 아니라, 식민지 경성의 근대성과 결합된 “도시적 동양인/중국인(urban Oriental)”의 형성으로 읽어야 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소비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신문 담론에서 구축된 중국인 거리와 중국인 남성성에 대한 표상은,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담론적 문법, 즉 범죄와 음모의 공간으로서의 차이나타운, 여성과 아동을 위협하는 성적 포식자로서의 중국인 남성, 그리고 근대적 외양 아래 감추어진 위험이라는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미국 오리엔탈리즘의 일방적 이식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범태평양 회로를 따라 제국적 인종 담론의 문법이 공유되는 가운데, 각 제국적 맥락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이를 변주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타자화의 양식을 생산해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 분석할 김동성의 〈엘렌의 功〉은, 바로 이러한 담론적 토양 위에서 미국 대중문화의 차이나타운 서사가 번역을 통해 유입되고, 이미 형성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타자

24) Tchen, *New York Before Chinatown*, pp.58-92.

화 담론과 접합하는 구체적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분석할 수 있다.

3-2. 1920년대 〈엘렌의 功〉번역의 매체적 조건과 김동성

1921년 〈엘렌의 功〉이 조선에 번역될 때의 매개 행위의 방식은 원작이 유통된 미국의 미디어 환경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앞서 2장에서 언급된 대로, 미국에서 *The Exploits of Elaine*은 신문 연재와 무성 연속활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매체 구조 속에서 소비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 연작 영화의 형태로 인기를 끌었던 *The Broken Coin*(1915)이 『명금』이라는 제목으로 1916년 조선에서 상영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영화와 신문연재소설이 결합된 방식의 수용은 아니었다.²⁵⁾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도 영화소설이라는 형식은 이미 유입되어 있었지만,²⁶⁾ 〈엘렌의 功〉은 이러한 영화소설의 형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동반 상영된 영화가 없었으며, 텍스트는 오로지 신문 연재라는 단일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2장 1절에서 분석한 미국의 이중 매체 구조(영화-신문 연동)가 조선에서는 단일 매체 구조(신문 연재)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각적 스펙터클의 기능이 전적으로 문자 서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25) 조선의 미속 연속영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백문임, 「감상(鑑賞)의 시대, 조선의 미국 연속영화」, 『사이間SAI』 제14호, 2013년, 213-264쪽.

26) 예컨대 미국 연속영화의 요소를 차용한 영화소설 「탈춤」이 1926년 『동아일보』에 34회에 걸쳐 연재된 바 있으며 (이만강, 「영화소설 『탈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4, 293-316쪽), 신일선을 주인공으로 한 무성영화 「괴인의 정체」(1927) 역시 서양의 범죄·탐정 활극을 모방한 형태로 등장했다 (이화진, 「무성영화 〈괴인의 정체〉(1927)의 재구성」, 『한국극예술연구』 제77호, 한국극예술학회, 2022, 181-210쪽).



〈그림 10〉『엘렌의 功』, 『동아일보』 1921.03.15., 4면.

1921년 김동성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었고 영어에 능통했으며, 국제 정세에도 밝았던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배경이 영문 원문을 통한 직역을 가능하게 했으며, 실제로 그의 번역본 〈엘렌의 功〉은 인칭이나 지명, 인명 등을 조선화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다. 이야기의 무대는 뉴욕이고, 인물들은 모두 서양인 혹은 중국인으로, 한국인이나 조선과 연결된 요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작가들이 즐겨 쓰던 의미적 번안(예컨대, 배경을 조선으로 현지화하거나 인물의 국적을 바꾸는 식,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개념으로 자국화(domestication)를 배제하고, 원작의 낯선 설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김동성은 이러한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통해 조선 독자들에게 외국의 신문물과 대중소설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혜영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 조선에서 번역의 직역/의역 논쟁이 있었을 때, 김동성은 분명 직역에 비중을 둔 인물이었다.²⁷⁾ 정혜영이 또 다른 논문에서 언급하듯이,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서구 탐정물의 결과물은 번안에 가까웠”으며, 이것은 “의역 이진 직역이진 간에 원작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번역의 형태보다는 조선

27) 정혜영, 「1920년대 조선과 직역의 의미: 『The exploits of Elaine』의 조선어 번역과 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4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535-558쪽.

적으로 변환된 변안의 형태로밖에는 수용될 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근대적 과학, 근대적 인식 구조, 근대적 삶의 양상 사이에 존재했던 거대한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번역 환경에서 김동성은 조선 독자가 느낄 문화적 간극을 소거하지 않고 원문을 직역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그의 번역은 대중적 접근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베누티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역명, 배경, 인물명 등을 원문의 이국적 요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을 관철한 경우로 볼 수 있다.²⁹⁾ 그러나 그의 번역이 완전한 이국화에만 머무른 것은 아니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원문에 없는 오리엔탈리즘적 해설을 삽입하거나, 서구의 오컬트 의례를 조선 독자에게 익숙한 ‘태상로군’, ‘옥황상제’ 등의 도교적 명칭으로 치환한 것은 명백히 자국화(domestication)의 흔적이다. 즉 김동성의 번역의 전략은 외재적 배경은 이국화하여 서구 문물의 신비성을 유지하되, 내재적 타자화의 매커니즘은 자국화된 코드를 통해 독자의 감각에 밀착시키는 복

28) 정혜영, 「번역과 변안 간의 거리 - 김내성의 변안탐정소설 〈심야의 공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28쪽. 이것은, 당시 일본어 중역의 경우 이미 한자어로 정착된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반면, 김동성은 영어 원문을 직접 조선어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선행연구에서는 The Exploits of Elaine의 원작 영화와 신문 연재를 직접 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이 그의 번역 선택과 직역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역은 일정한 한계를 수반했다. 당시 조선의 근대 문화이 언문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겪지 못한 김동성의 번역은, 대중에게 낯선 한문체와 한자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고소설의 무인칭 시점에 익숙했던 조선 독자들에게 원문의 1인칭 서술을 그대로 옮긴 방식은 쉽게 소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29) L.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이러한 이국화의 전략은 중국의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백광준이 논의하듯, 당시 중국에서도 서구 탐정소설의 번역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번역의 특징으로 “신문물과 외국 지명의 과다노출은 어휘의 낯선 느낌을 그대로 보존하여, 독자들에게 서양 문명의 기호들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중화와 차별된 것으로, 그리하여 (서학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고 지적된다(백광준, 「청말, 그리고 외국 추리소설의 번역」, 『중국문학』 제49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6, 242쪽).

합적이고 절충적인 양상도 띠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직역 위주의 태도는 원문 텍스트의 오리엔탈리즘적 내용도 수정 없이 전달한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번역자는 원작의 중국인 비하 코드나 이국 취향 묘사를 식민지적 검열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걸러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당시 조선 총독부 검열의 직접적 대상이 정치·사회 비판에 한정되었고, 대중소설 속 외국인 악당 묘사는 검열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3·1 운동 이후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던 일제로서는, 조선-중국 간 연대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담론이 유통되는 것을 굳이 차단할 이유가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김동성 본인이 이러한 정치적 고려로 번역 방향을 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그가 미국식 모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열정적이었던 점, 그리고 중국인을 타자화하는 서술에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그는 번역가로서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의도 속에 함축된 오리엔탈리즘까지도 별다른 주석 없이 흡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동성의 번역은 서구 문물을 있는 그대로 조선 독자에게 소개하려는 의식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동성의 번역가로서의 위치는 단순한 언어적 중개자가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인종화된 타자 표상을 조선어 독서장 안으로 들여오는 문화적 매개자였으며, 그 매개 행위 자체가 번역의 정치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독자는 단지 외국의 탐정담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이미 구축해 놓은 중국인과 차이나타운의 표상을 번역된 형태로 접하게 된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관점에서 번역은 텍스트 선택과 윤리의 문제로, 번역가는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언어적 선택을 수행하는 주체이다.³⁰⁾ 이 이론적 틀에서 김동

성은 번역자로서의 위치를 바라보면, 그는 원문의 이국적 요소를 조선어 독서장 안에 그대로 이식하는 선택을 수행한 번역 주체다. 즉, 미국 유학을 통해 서구 근대 지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한 김동성은 단순한 언어 전환자가 아니라, 서구적 과학성과 이성을 이미 내면화한 주체로서 계몽자의 위치에서 번역을 수행했다.

이러한 번역 주체의 위치는 독자의 동일시 구조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엘렌의 功>에서 독자는 서술자인 제임슨 혹은 탐정 케네디의 시선을 통해 서사를 경험한다. 화자 제임슨의 1인칭 시점을 통해 사건을 따라가는 독자는, “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I took in the situation at a glance)”와 같은 서술을 통해 그의 인식 위치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Every criminal leaves a trace”라고 단언하는 케네디의 과학적 합리성을 공유하는 이성적 주체의 위치로 유도된다. 번역자 김동성 역시 이러한 시점과 어조를 충실히 유지함으로써 서구 지식 생산자의 위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나오키 사카이(Naoki Sakai)의 이론을 빌리자면, 이 과정은 번역자와 독자가 모두 ‘서구’라는 이성의 위치로 구성된 인식 체계 속에서 동일시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행 중인 주체(subject in transit)”로서 번역자와 독자 모두가, 서구적 이성의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주체 분할과 동일시의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다.³¹⁾ 케네디 탐정이 체현하는 과학성, 실증주의, 합리적 추론은 단순한 장르적 관습이 아니라 서구 근대성 자체의 형상화이며, 조선 독자가 제임슨의 1인칭 시선을 통해 케네디의 추리를 따라

30) G. Spivak, “The Politics of Translation,”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1993, pp.179-200.

31) N. Saka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7, pp.1-20.

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근대적 이성을 체험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은 중국인 악당과 차이나타운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인종적 시선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으며,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룡 신의 재현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3. 인종화된 언어: 룡 신과 중국인의 번역

2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원작 *The Exploits of Elaine*에서 룡 신의 형상은 인종적 외양, 습속과 행동, 공간적 코드, 범죄 코드라는 네 가지 축으로 작동하며, 각각의 축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타자 이미지를 구성한다. 김동성의 번역 〈엘렌의 功〉은 이 구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조선어 신문 연재라는 매체적 조건 속에서 독자에게 가독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열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앞에서 인용된 원문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원문과 번역의 대조 분석을 해보면, 김동성에 의해 추가되고 설명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룡신'은 만주인의 테격으로 수염이 축느러졌고 조흔 양복을 입어서 서양물이 배인 동양 사람이 되엿섯다.

(나)중국사람인 룡신은 서양사람보기에 얼굴빛이 누르고 얼굴판은 넓적하야 타국사람이라고 말은 아니하여도 얼마큼은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 누른 얼굴 속에 괴괴한 계책이 만히 잇섯다. 동양사람으로 보더라도 룡신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오 어디로던지 뛰어난 사람이엇섯다. 그러케 천재가 구비한 사람이 마음이 바로 박히엇더면 훌륭한 명사가 되엿겠지마는 룡신은 그런 길로 발길을 돌니엇다. 지금까지 룡신은 별 흉악한 일을

만히 하엿것마는 원래 술책이 무궁무진하여 한번도 법관에게 붓들닌일이 업섯다. (밑줄: 인용자)

(다)이 음흉한 룡신은 장안북판에 애플트먼트를 세내여 가지고 미국식으로 화려하게 꿈이엿고 그우에 동양의 기묘한 미술품을 모아다 노왓슴으로 엿던 손님이 드리오던지 얼른보기에 아귀자기도 하고 또 다시 보면 눈이 현황할만치 방치장을 차리어노왓섯다.

(라)하로는 룡신이 자기본국복색으로 찬란하게입고 기다만한화류의자에 비스듬이 누어서 통소만한 담배대를 물고 연기를 흑 길게 드리마시엿다. 중국 사람은 이상스러운일이 만히 잇서 쥐를 작란가음으로 기르는지 룡신은 희쥐두마리를 항상 만지고 잇섯다. 이쥐들은 다리에 금사실로매이고 금사실의 기리는 한자쫘되는데 그곳해는 금고리가잇서서 그 고리를 룡신이 자기 손가락에 끼웠다가 어디로 나갈때면 룡신은 넓은 자기소매에 담여가지고 다니엿다. (밑줄: 인용자)

(마) 룡신이 종소래를 듯고 뒷방으로 배음장어가치 슬몹이빠져드러가면서 문을 러려주라고 하인에게 분부를 하엿다.

(바) 메리는 거짓 놀난채하며 손을 부비고 “이를 엿지면 조홀가. 이곳이 처인들이 모혀서 서양녀자들을 놀녀내이는 집인 것이로군”하고 울면서 책상 우에 노히어 잇는 꺾짜을 들고 보앗는데 내음새가 이상스럽게 낫다.

(사) 그 청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에와서사는 청인중에 각당파가 잇서 변쩍하면 사람을 살해하지요 이 당파에서는 저당파 사람을 저당파에서는 이당파사람을 암살합니다. 그래서 웨신문에 각급청인이암살을 당한다는 말이 나지아너요. 그 우악한 청국놈들은 저희끼리 사람을 마구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내여보내든 청인은 죽은 친왕과 당파가 다른데 어늬때 틈을타서 친왕을 암살하려고 속이고 드러와서 종노릇을 하고 잇는 차에 엘

렌양이 그자의 수고를 더러준모양이야요 그 청인이 나를 쪼차나아와서 하는 말이 엘렌양이 자기일을 대신하여 주었다하고 돈이만원만 주면 송장을 감짜가치 숨기고 아모말도 아니하겠다고 합되다 하고 장황히 이야기특하였다. (밑줄: 인용자)

(아)미국에 이민으로와서 사는 청인들은 어니도회이던지 한편에 모혀서 한부락을 세우고 순전한 본국사림을 하고 있다 그러함으로 뉴욕에 청인의 시가는 한구경거리가 된다. 청인의 시가에는 골목도 이리 저리 만히 꾸브러져서 그 안을 익숙이 아는 사람외에는 순사까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아지못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더러움과 컴컴한 집이 하나 잇섯다 그집이 외면으로 보기에는 힘드려 버러먹고사는 청인의집인듯하나 기실은 청국에서까지 당을지은 귀신을 숭배하는 악한의 굴혈이엇섯다. 이 종교를 믿는 자들은 가장 위험한 청인들이니 암살당원도 잇고도 적도 잇으며 그외에도 여러 비밀회에 회원이 되는 청인들이 입참하였섯다. 이러케튼튼하게 조직된 종교의 괴수는 통신인대 통신은 발서 우리가 본것과 가치 유명한 움켜쥔 주먹과 연락이 되엇섯다. (밑줄: 인용자)

(자) 탁자우해는 쇠덩이로 만든 우상에 금칠을 하였는데 별것이 아니라. 청인의 몸에 금칠을 입히인것인데 몸에는 아모의복을 입지안코 살이 우굴쥔 곱한 동삼이엇섯다. 통신은 화려한 비단례복을 입고 이방으로 드러왔다. 그 우상압해는 음식물을 버려노앗는데 밥과 국이며 과일과 채소가 느러노왔고 한편에는 향로가잇는데 통신은 허리를 굽혀 절을 두어번하고 손으로 향을 피엇다 그후는 또 절을 두어번 하였는데 이례절을 지내일때에 압방에서 청인이 삼십명은 무릎을꿇코 참례하였다. 통신이 할일은 다히엇던지 그압해잇든 청인들은 한사람씩 압호로 나가서 분향재배를 올녔다. (밑줄: 인용자)

우선 번역문 (가)에서, 원문의 “mandarin type”은 “만주인의 తె격”으로 옮겨진다. “mandarin”은 원래 중국 관료 계층을 지칭하는 서구적 용

어로, 2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룡 신을 지배 계층적 권위와 결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만주인”은 민족적 범주로, 관료적 지위의 함의가 탈락하고 인종적 유형으로 전환된다. 또한 원문의 “conforming to the new customs of an occidentalized China”라는 표현은 룡 신의 서구화가 중국 사회 전체의 변화 맥락 안에 위치한 것임을 암시하지만, 번역문의 “서양물이 배인 동양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탈각시키고, 서구 문명의 표면적 흡수라는 개인적 속성으로 축소시킨다. “서양물이 배인”이라는 표현은 “물이 배다(스며들다)”라는 관용어를 통해 서구화를 표면적 침투로 형상화하며, 이는 룡 신의 서구적 외양이 본질적 동화가 아닌 피상적 모방에 불과함을 암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인용문 (나)에서, “중국사람인 룡신은 서양사람보기에 얼굴빛이 누르고 얼굴판은 넓적하야 타국사람이라고 말은 아니하여도 얼마큼은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였다”라는 번역은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누런 얼굴빛”과 “넓적한 얼굴판”이라는 구체적 신체 묘사를 삽입한다. 이는 단순한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번역자가 ‘서양 사람의 시선으로’ 동양인의 신체를 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인식론적 위치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의 번역자는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동양인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타자화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누른 얼굴”이라는 표현은 이른바 황화론의 핵심 기표인 ‘yellow’를 조선어로 물질화한 것이며, 조선 독자에게 룡 신의 위협성이 단순히 개인적 악행이 아니라 인종적 신체 그 자체에 각인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번역본은 “그러나 그 누른 얼굴 속에 괴괴한 계책이 만히 잇섯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는데, 원문이 “무표정한 동양적 표정(impassive Oriental countenance)” 아래 숨겨진 음모를 지적한다면, 번역본은 “누른 얼굴 속에” 괴괴한 계책이 있다고 함으로써 인종적 신체와 범죄적 내면

을 직접적으로 등치시킨다. 얼굴의 색깔이 곧 내면의 사악함을 담는 표현으로의 이 수사적 전환은, 식민지 조선에서 황인종의 인종화가 서구 원문보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신체화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용문(라)와(마)에서 룡 신의 비인간화는 동물적 은유를 통해 수행되는데, 그가 금사슬에 매인 흰 쥐를 소매 속에 넣고 다니는 기괴한 습성을 통해 룡 신을 서구적 합리성의 바깥에 위치시킨다. 흰 쥐는 전통적으로 역병과 불결함의 기표이며, 이를 애완으로 삼는 행위는 룡 신의 도착적 감수성을 암시한다. 나아가, 룡 신의 움직임을 뱀의 미끄러짐에 비유함으로써 그를 교활하고 냉혈한 파충류적 존재로 환원한다.

번역본에서 이 두 은유의 처리 방식은 흥미롭게 갈린다. 흰 쥐 묘사의 경우, 번역본은 원문에 없는 “중국 사람은 이상스러운일이 만히 잇서 쥐를 작란가음으로 기르는지”라는 해설적 문장을 삽입한다. 이 삽입은 단순한 행위 묘사를 넘어, “중국 사람”이라는 집단 전체를 “이상스러운 일이 많은” 존재로 일반화하는 인종적 논평으로 기능한다. 원문이 룡 신 개인의 기벽으로 처리한 것을, 번역본은 중국인이라는 인종 집단 전체의 기질적 특성으로 확대하여, 룡 신이라는 개별 악당을 중국 사람 일반의 표본으로 전환시키는 인종적 환유(metonymy)를 수행한다.

반면, 뱀의 직유는 번역본에서 “배음장어가치 슬몃이빠저드러가면서”로 변환된다. 원문의 “serpent(뱀)”가 번역본에서 “뱀장어”로 바뀐 것이다. 뱀이 성서적 전통에서 원죄, 유혹, 사탄과 결부된 강력한 상징체계를 지닌다면, 뱀장어는 그러한 신학적 무게를 갖지 않는 대신 미끄럽고 잡을 수 없는 물리적 감각을 더 직접적으로 환기한다. 이 번역적 치환은 기독교 문화권 독자에게 작동하는 “serpent”의 악마적 함의가 조선 독자에게는 동일한 무게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번역자의 문화적 판단을 반영하는 동시에, 룡 신의 위협성을 형이상학적 악(evil)이 아니라 포착 불가능한

교활함이라는 세속적 차원으로 재조정한다. 이러한 변환은 13장의 악마 숭배 장면에서 룡 신이 “the high priest of the Devil God”으로 등장하며 사탄주의적 의례를 집전하는 맥락과 대조적인데, 12장의 번역에서 이미 탈(脫)기독교화된 동물적 은유가 사용됨으로써, 식민지 조선 독자에게 룡 신의 악마성은 서구 기독교적 프레임보다는 “기이하고 이상스러운 동양인”이라는 인종적, 문화적 타자성의 프레임 안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용문 (사)에서 미국 내 공동체를 설명하며 “각당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원작의 “Tongs(중국계 비밀결사)”를 번역한 것이지만, 김동성은 이를 단순히 범죄 조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쩍하면 사람을 살해”하거나 “저희끼리 사람을 마구 죽임”과 같은 수사를 덧붙여 강조한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 내 팽배했던 황색 공포 이미지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우악한 청국놈들”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중국인을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한편 번역문이 중국인을 “청인” 혹은 “청국 사람”이라 지칭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2년 청 멸망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이 지칭어는, 중국인을 전근대 왕조 국가의 국민이라는 과거지향적 프레임 안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며, “우악한 청국놈들”이라는 비하적 표현과 결합하여 중국인 타자화의 언어적 층위를 구성한다.

3-4. 차이나타운의 공간적 번역: 관광과 범죄의 이중 코드

번역 〈엘렌의 功〉에서 차이나타운 공간은 관광버스 장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입된다. 뉴욕 시내를 누비는 관광버스 위에서 룡 신이 엘렌 양의 주택을 정탐하는 장면은 번역문에서 이렇게 묘사된다. “수십명의 구경군

이 안짓든 자동차 한가운데에 쪼구리고 안저잇는 청인 한사람을 누구나 이상스럽게 생각할것도 업섯다. 세계각국사람이 뉴욕을 구경하고 도라다니는 것은 레사이엇슴으로 엇던 사람이던지 이 중국 사람을 별하게 보지도 아니하엿섯다.” 이 장면에서 차이나타운은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룡신이 뉴욕의 군중 속에 자연스럽게 용해되면서도 실은 음모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정은, 차이나타운의 폐쇄성과 은밀함이라는 공간 코드와 연속선상에 있다. 원문의 시티투어 버스 바커(barker)가 구사하는 지시, 과장, 친근함이 뒤섞인 말투는 현장감을 창출하는 반면, 번역문은 동일한 기능(엘렌 저택의 위치 제시)을 유지하면서 원문에는 없는 뉴욕의 거대함을 인구, 건물 층수, 자동차 수 등의 사실적 범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원문의 감각적 현장성을 정보적 계몽성으로 대체하는 부분으로, 낯선 도시의 타자성을 조선 독자에게 제도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뉴욕의 차이나타운을 “구부러져서 순사까지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곳”, “더럽고 킴킴한 집”으로 묘사하고, 특히 비밀 종교의 본거지를 “악한의 굴혈”이라고 명명한 점이 주목된다. 원문의 “winding way... unknown... even unknown to the police”는 번역에서 “청인의 시가에는 골목도 이리저리 많이 구부러져서 그 안을 익숙이 아는 사람 외에는 순사(巡査)까지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었다”로 옮겨지는데, 김동성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차이나타운을 “한구경거리”(하나의 볼거리)로 규정한다. 이 표현은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번역자의 추가로, 조선 독자에게 이국적 매혹을 부연하는 동시에 번역자 자신이 미국 체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면모이기도 하다. “한구경거리”라는 규정은 2장에서 언급한 슬러밍 관광 담론의 시선을 번역자가 내면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 결과 번역문에서 뉴욕 차이나타운은 관광 명소이자 범죄의 은신처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제시된다. 이러한 공간적 재현은 3-1절에서

분석한 식민지 조선 신문의 “마굴 탐방” 기사가 중국인 거주지를 서사화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번역된 탐정소설의 차이나타운 서사가 식민지 조선의 중국인 거리 담론과 상호 공명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곳에서 벌어지는 종교 예식을 “귀신 숭배”로 번역함으로써 중국 문화 전반을 괴기스럽고 사악한 것으로 변주한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룡 신이 주도하는 종교 예식 장면이다. 번역문에는 “태상로군”이 외국 여자를 소실로 얻으려 한다는 설교를 삽입하는데, 원작의 오컬트적인 요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동성은 동양 독자들에게 익숙한 도교적 명칭인 ‘태상로군’이나 ‘옥황상제’를 차용한다. 그러나 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금발 미녀를 탐하는 “음란하고 기괴한 귀신”으로 번역한다. 김동성은 “청국의 방”의 화려함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살이 우글쭈글한 동상”으로 묘사하여 시각적 혐오감을 유발한다. 이는 전통적 가치를 근대적 합리주의의 시각에서 ‘미신’이자 ‘광기’로 박제하는 서구의 시선이 식민지 지식인의 복합적인 시선 안으로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말부에서 변장했던 케네디가 정체를 드러내며 중국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문명과 야만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케네디씨는 발서 육혈포를 끄내여 들고 웃독섯스니까 여러청인들은 마른하늘에 떼둥이나 듯는 듯이 두려웁고 겁이나지아니한 자 없섯다. 룡신은 큰 징 뒤로 뛰어들어가서 숨엇고 다른 청인들은 케네디씨에게 몰켜드러 주들겨쿠고자하였다”라는 번역에서, 중국인들은 “머리 꼬리(변발)”가 잡히고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를 듣는 듯” 겁에 질린 모습으로 묘사하고, 반면 서구 영웅 케네디는 “육혈포(권총)”라는 근대적 무기를 사용하여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한다. 특히 케네디가 중국인의 기술인 “유술”로 그들을 “태질”치고, 역으로 “청국 칼”을 빼앗아 휘두르는 모습은, 서구적 영웅이 동양인 타자의 무술과 무기까지 전유하여 그들을 제압하며 문명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현된다.

3-5. 번역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이동과 굴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엘렌의 功〉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인종화된 타자 표상이 조선어 독서장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맥락화 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원작과 조선 번역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의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번역본 『엘렌의 功』은 원작의 중국인 타자화 코드를 거의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고, 룡 신의 외모에 대한 인종적 서술, 차이나타운 공간의 범죄성, 동양인에 대한 미신·잔혹의 이미지, 백인에 맞서는 동양 악당과 서구 영웅의 대결 구도 등 핵심 요소가 모두 유지 혹은 강화된다. 번역본은 원작의 주요 표현을 상당 부분 등가에 가깝게 옮겼다. 몇몇 용어 선택의 차이(예: Chinaman→청인, devil→귀신 등)는 있으나, 이는 뉘앙스상의 큰 변화 없이 기능적으로 대응된다. 특히 아편 상자, 비밀결사 의식, 청동 징, 음산한 밀실 등 오리엔탈리즘적 소도구와 설정들은 번역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원작과 번역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차이는 세 가지 층위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번역자의 개입적 서술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의 강화이다. 3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중국 사람은 이상스러운 일이 만히 잇서”라는 식의 번역자 논평, “그 누른 얼굴 속에 괴괴한 계책에 만히 잇섯다”라는 인종-윤리 등치, “이 음흉한 룡신”이라는 선제적 도덕 판단 등은 모두 원문에 없는 번역자의 개입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개입이 원문의 오리엔탈리즘적 코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점이다. 반면 원문에서 룡 신이 서양인을 “uncouth westerners(무례한 서양인들)”라고 지칭하는 대목은 번역에서 생략된다. 이 생략은 원문이 의도한 동양 악당의 교묘한 자기 우월 뉘앙

스를 제거하여, 독자가 룡 신의 내면적 복잡성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단순한 악의 화신으로만 읽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는 발화 주체의 위치 이동에 따른 담론적 재맥락화이다. 원작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 저자가 서구 독자에게 말하는 담론이다. 반면 번역본의 그것은 비서구인 번역자가 자국 독자(역시 비서구인)에게 전달하는 담론이 된다. 이때 번역자는 서구 담론을 중계하면서 스스로 그 시각을 내면화하거나, 최소한 비판 없이 재전달한다. 그 결과 조선 독자는 이중적으로 대상화된 중국인 형상을 마주한다. 즉 서구의 시선으로 타자화된 중국인을, 또 한 번 조선인의 시선으로 타자화하여 소비하는 구조이다. 이 이중적 타자화 구조는 3장에서 분석한 조선의 중국 인식에 대한 배경, 즉 중국인을 이질적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동양 내부의 위계 속에서 자신과 구별하는 조선인의 인식 구조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셋째는 수용자의 문화적 위치에 따른 동일시 구조의 변환이다. 미국의 독자는 룡 신을 보며 자문화 우월과 타문화 경시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선 독자는 서구 영웅과 동양 악당의 싸움을 보다 복잡한 위치에서 경험하게 된다. 조선 독자는 서구인도 아니면서 작품 내 동양인(중국인)과도 동일시하지 않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3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독자는 제임슨과 케네디라는 서구 남성의 시점에 편입되어 서사를 경험하도록 유도되지만, 그 동일시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적 위치와의 긴장 속에서 수행된다. 즉 조선 독자는 서구적 이성의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동일시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그 위치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분열적 주체 경험 안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 구조 속에서, 미국 오리엔탈리즘 콘텐츠는 조선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채, 다만 그 의미 작용은 조선의 맥락에서 변주된 채 전달되었다.

요컨대, 〈엘렌의 功〉 번역은 미국 원작의 오리엔탈리즘적 골격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하면서도, 번역자의 개입적 서술, 발화 주체의 위치 이동, 수용자의 문화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그 의미 작용을 굴절시킨다. 미국 원작에서 중국인 표상은 백인 주체가 자문화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축한 인종적 타자의 전형이었다면, 이 동일한 표상이 조선어 문화 장 안으로 유입되었을 때, 시선의 기원이 달라진다. 서구 백인이 동양인 전체를 타자화하던 시선은, 식민지 조선인이 같은 동아시아권의 중국인을 타자화하는 시선으로 전환된다. 이때 오리엔탈리즘의 내용은 동일하되, 그것을 발화하고 소비하는 주체의 인종적·정치적 위치는 근본적으로 상이해진다. 이 구조적 전환은 단순한 번역의 부산물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이 처해 있던 중층적 권력 관계의 반영이다. 조선인 독자는 미국적 시선에서 보자면 중국인과 함께 ‘오리엔트’로 범주화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텍스트 안에서는 서구 영웅의 시점에 편입되어 중국인을 타자로 응시하도록 유도된다. 이 분열적 위치는 식민지 조선으로 황화 담론이 순환될 때 발생한다. 조선 독자는 서구적 합리성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중국인의 야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서구적 시선이 궁극적으로 자신마저 타자화할 수 있다는 긴장을 내포한 채 서사를 소비한다. 식민지 조선의 중국 인식, 즉 동양 내부의 위계 속에서 중국을 “낙후된” 존재로 구별하려는 욕망은 이러한 분열적 독서 경험에 정서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이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제국의 순환 경로를 따라 생산된 인종적 타자화의 담론이 비서구 식민지로 유입될 때, 텍스트의 내용적 변형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담론을 수용하는 주체가 인종적 위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은 조선에서 내용상 충실히 재현되었으나, 그것을 읽는 주체가 ‘서구인’에서 ‘피식민 비서구인’으로 바뀔으로써, 동일한 중국인 표상은 제국의 자

기 확인 장치에서 식민지 내부의 타자 구별 장치로 그 기능이 이행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의 순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소멸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고유의 권력 관계 속에서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타자를 배치하며 증식한다. 〈엘렌의 功〉의 번역은 바로 이러한 인종 담론의 순환과 굴절이 텍스트의 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은 미국 탐정소설 *The Exploits of Elaine*과 그것의 조선어 번역 〈엘렌의 功〉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미국 대중문화 속 황화론 담론이 번역을 통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고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룡 신이라는 중국인 악당과 차이나타운 공간의 재현은 단순한 범죄 서사의 장치가 아니라, 중국인을 음험한 비밀결사·아편·주술·성적 위협과 연결하는 미국 오리엔탈리즘의 핵심 코드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 표상이 김동성의 번역을 통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입적 서술에 의한 인종적 코드의 강화, “뺨”에서 “뺨장어”로의 문화적 치환에서 나타나는 탈기독교화,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기존 중국 인식과의 접합이라는 구체적인 재맥락화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도달한 결론은, 〈엘렌의 功〉의 번역은 미국 원작의 오리엔탈리즘적 골격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하면서도, 번역자의 개입적 서술, 발화 주체의 위치 이동, 수용자의 문화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그 의미 작용을 굴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독자는 서구 남성 탐정의 시점에 편입되면서도 동양인 악당과 자신을 구별하는 이중적 위치 속에서, 이중적 타자화와 분열적 주체 경험이 교차하는 수용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수용 구조는 미국 독자의 그것과 텍스트 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수용 주체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문화정치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결론은 본 연구가 서론에서 제기한 이론적 질문, 즉 제국의 인종 담론이 하나의 국민국가적 기원에서 주변부로 일방향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적 회로를 따라 다방향적으로 순환한다는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혹스워스는 블랙페이스라는 특정한 퍼포먼스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가 제기하는 핵심 논점, 즉 인종화된 표상의 순환 과정에서 비서구 주체들이 해당 담론과의 관계 속으로 편입된다는 주장은, 〈엘렌의 功〉의 번역이 1921년 식민지 조선의 독서장으로 이동하면서 “범태평양적 순환”의 한 경로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의 사례는 혹스워스의 분석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확장과 변형을 요구하는 지점을 포함한다. 혹스워스가 추적하는 블랙페이스의 순환은 주로 영어권 제국 세계 내부의 경로, 즉 영국, 미국, 호주, 인도, 자메이카, 남아프리카 등을 잇는 회로를 따른다. 반면, 〈엘렌의 功〉의 사례는 미국 대중문화의 인종화된 표상이 영어권 제국 회로를 벗어나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 조선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 경로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매개가 아니라, 혹스워스가 블랙페이스 퍼포먼스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기능, 즉 인종에 관한 이미지와 감정 구조를 순환시키는 “대중적 매개체”로서 작동한다. 김동성의 번역이 수행한 것은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을 조선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선 독자를 이 인종화된 담론과의 관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행위였다.

나아가, 호스워스는 이러한 인종 개념의 순환이 식민지의 주체를 단순한 수동적 수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싫든 제국이 만들어낸 인종적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징집(conscrip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독자의 수용 구조, 즉 서구 남성 탐정의 시점에 동일시하면서도 동시에 동양인 악당과 자신을 구별하는 이중적 위치는, 이러한 “징집”이 수용 주체에게 분열적 주체 경험을 야기함을 보여준다.³²⁾

미국의 차이나타운 오리엔탈리즘이 번역이라는 구체적 매개 행위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독서장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인종적 코드가 굴절되면서도 존속되는 경로를 살펴본 본 논문의 의의는 번역 텍스트를 제국의 인종 담론이 순환하는 구체적 흔적에 위치시키고, 원문 대조를 통해 번역자의 개입이 인종적 코드를 어떤 방향으로 변형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데 있다. 호스워스가 블랙페이스의 대양횡단적 순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국의 인종 담론은 하나의 기원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순환하고, 각 접점에서 현지의 인종적, 식민지적 조건과 접합하면서 재활성화된다. 〈엘렌의 功〉의 번역은 이 순환이 영어권 제국 회로를 넘어 동아시아 식민지의 독서장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비서구 사회의 번역 행위가 서구 담론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제국적 인종 담론의 순환 회로 안에서 수행된 복잡한 문화적 협상의장이었음을 시사한다.

32) Hoxworth, 앞의 책, p.39, p.66, pp.71-72.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동성 역, 「엘렌의 공」, 『동아일보』, 1926년 1월-12월. [연재본]

『동아일보』

『조선일보』

Reeve, Arthur B. *The Exploits of Elaine*. New York: Hearst's International Library, 1915. Produced by Charles Franks and the Online Distributed Proofreading Team (Project Gutenberg, 2004), <https://www.gutenberg.org/ebooks/5151>.

Nebraska Daily News-Press Sun

Omaha Daily Bee Sun

The Star-Independent

2. 논문과 단행본

백광준, 「청말, 그리고 외국 추리소설의 번역」, 『중국문학』 제49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6, 237-252쪽.

백문임, 「감상(鑑賞)의 시대, 조선의 미국 연속영화」, 『사이間SAI』 제14호, 2013, 213-264쪽.

오미일,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 『동방학지』 제163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3-33쪽.

이만강, 「영화소설 『탈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4, 293-316쪽.

이화진, 「무성영화 <괴인의 정체>(1927)의 재구성」, 『한국극예술연구』 제77호, 한국극예술학회, 2022, 181-210쪽.

정혜영, 「1920년대 조선과 직역의 의미: 「The Exploits of Elaine」의 조선어 번역과 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535-558쪽.

- _____, 「번역과 변안 간의 거리 - 김내성의 변안탐정소설 〈심야의 공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05-433쪽.
- Ahmad, Diana L, *The Opium Debate and Chinese Exclusion Laws in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n West*,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2007.
- Chin, Ko-lin, *Chinatown Gangs: Extortion, Enterprise, and Ethni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Clifford, James,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Eng, David L,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 Eskildsen, Robert, "Of Civilization and Savages: The Mimetic Imperialism of Japan's 1874 Expedition to Taiw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2, 2002, pp.388-418.
- Gates, Philippa, *Criminalization/Assimilation: Chinese/Americans and Chinatowns in Classical Hollywood Film*,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9.
- Hoxworth, Kellen, *Transoceanic Blackface: Race, Empire, Performanc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25.
- Heap, Chad, "Adventures in the Slums and Red-Light Districts", In *Slumming: Sexual and Racial Encounters in American Nightlife, 1885-1940*, pp.101-15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Klein, Thoralf, "The 'Yellow Peril'", In *European History Online*, edited by J. Paulmann. Mainz: Leibniz Institute of European History, 2015.
- Lee, Erika, *At America's Gates: Chinese Immigration during the Exclusion Era, 1882-1943*,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 Light, Ivan, "From Vice District to Tourist Attraction: The Moral Career of American Chinatowns, 1880-1940",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3, No. 3, 1974, pp.367-394.

- Liu, Lydia H,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Lowe, Lisa,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 Marchetti, Gina, *Romance and the "Yellow Peril": Race, Sex, and Discursive Strategies in Hollywood Fi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Ngai, Mae M,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akai, Naok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 Shah, Nayan,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179-200. New York: Routledge, 1993.
- Stamp, Shelley, *Movie-Struck Girls: Women and Motion Picture Culture after the Nickelode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Tchen, John Kuo Wei, *New York before Chinatown: Orientalism and the Shaping of American Culture, 1776-188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5.
- ,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Routledge, 1998.
- Zohar, Ayelet, "Introduction: Race and Empire in Meiji Japan",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8, No. 20, 2020, pp.1-12.

Abstract

Circulating Chinatown: The Translation of *Ellen-ui Gong* (1921) and the Discourse of Chinese Othering in the Transpacific Circuit

Lee, Yu-Jung(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discourse of Yellow Peril and Chinese othering, originally produced within early twentieth-century American popular culture, circulated to colonial Korea through translation. It focuses on Kim Dong-sung's serialized Korean translation of Arthur B. Reeve's *The Exploits of Elaine*, published in the Dong-A Ilbo in 1921 under the title *Ellen-ui Gong* (<엘렌의 功>). By doing so,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rough a concrete case that the discourse of Chinese othering was shaped simultaneously along the transpacific imperial circuits. Grounded on the premise that American Chinatown Orientalism and the Japanese Empire's discourse of Chinese othering were part of a resonant representational system within a transnational imperial network, this study extends Kellen Hoxworth's transoceanic circulation of blackface into the context of East Asian translation.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racialized representation of Long Sin and Chinatown in the original text within the context of the American Yellow Peril discourse following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It also examines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gender embodied by the "New Woman" Elaine, as well as the internal threat structured by the white male villain. Section 3 examines Kim Dong-sung's translation strategies through a textual comparison. It analyzes how Orientalism is refracted across three levels: the translator's explanatory interventions, the displacement of the speaking subject, and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target audience. Furthermore, it elucidates how the American

Chinatown narrative overlapped with the Japanese Empire's discourse of Chinese othering and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in colonial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ng that translation was not a passive reception of Western discourses, but a complex arena of cultural negotiation within the circulation of imperial racial discourses. Moving beyond the linear diffusion model of cultural imperialism, this study shows that the displacement of discourse through translation always entails recontextualization. Ultimately, it offers theoretical implications by expanding Hoxworth's Anglophone-centric framework into the East Asian translational pathways.

(Keywords: Orientalism, Chinatown, Othering Chinese, Kim Dong-sung, *The Exploits of Elaine*, colonial Korea, translation)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5일